CONTENTS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81
무주네트워크 이상진 대표

8 실개천과 금강 4

14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13

18 정책&이슈

24 미호종개 어류 방류행사

26 대청호 환경 드로잉 콘서트

28 서화천거버넌스 활동보고

30 회인천거버넌스 활동보고

31 네트워크 사업보고

36 대청호 뉴스&뉴스

38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 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소식 vol.136

발행일 2022. 12. 7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임정미
사무처 임정미, 김재곤,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표지이야기 :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며 우리 모두 지난날들 속에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본부와 같이 활동해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대청호를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과 환경교육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성년이 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젠 바뀌어야 된다.”

무주네트워크 이상진 대표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무주네트워크 이상진 대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말에 무주의 한 정자 위에서 이상진 대표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과거와 현재의 무주

이상진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무주 토박이며 무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다.

“제가 어렸을 때 무주에 들어와 이곳 제 고향을 떠나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사오십년 가까이 이 지역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많이 변했죠. 시골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도 많이 변했고 하천도 많이 변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게 당연하지만 좋게 변한 것도 있지만 안 좋게 변한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천이나 우리생활이나 많

이 변하다 보니 환경오염도 많아지더군요. 예전에는 우리 지역 하천에서 멱도 감고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이 오염이 많이 됐고 무주 같은 경우 안성만 보더라고 종합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오염이 더 심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참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려웠지만 그만큼 더 큰 보람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무주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을 7년을 하고 2년째 대표를 맡아 환경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주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대청호보전운동본부라고 얘기하며 동네를 좀 개선해보자 깨끗이 해보자 하며 방문하면 마치 잡상인이 방문한 것처럼 “뭐 그런 밥도 안 되는 거 하러 여기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냐.”라고 하시기도 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해라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시며 쫓겨 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이 변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들어가서 정화활동도 하고 환경교육도 진행하면서 그 지역 분들과 같이 고생하며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기네들 손으로 마을이 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외지에 있는 출향객들이 와서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 있으니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들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주민들도 자기네 황망했던 마을이 꽃길도 생기고 구석구석에 있던 쓰레기도 없어지고 마을이 깨끗해지니 다들 생각도 많이 바뀌셨죠. 이게 불과 1년 만에 바뀐 모습입니다. 이제는 자기네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다보니 이제는 그만 하려고 해도 가지 말라고 붙잡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마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같이 참여해서 활동할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제가 예전에도 한 말이지만 지금 매해마다 전국 강의 날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대청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청호 하면 금강이라는 큰 물줄기에서 나온 대청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걸 가지고 강의 날 대회에 나가보자. 그리고 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라는 단체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째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단체를 잘 모르는 건지 우리 마을도 이런 활동을 해 달라 하며 요청 하는 곳이 없어요. 이제는 저희가 찾아가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며 물어 보는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며 요청을 하면 우리는 그냥 가서 서포트 해주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 같아 많이 아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단체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했다. 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해져 있는 마을에 국한되어 있는 마을만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마을에서 일정 활동을 하고 활동이 끝나면 다른 마을하고 또 똑같은 활동을 이어나가고 그런 식으로 저희의 활동이 좀 고착화 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처럼 너무 똑같은 활동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청호보전운동본부도 20년이 지나 성년이 되었는데 너무 똑같은 틀 안에서 똑같은걸 가지고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가 남대천을 끼고 있고 구량천이라는 큰 하천을 끼고 있는데 너무 일부지역 그러니까 금강을 접하고 있는 지역만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류를 끼고 있는 마을들도 저희가 나서서 활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 지류를 끼고 있는 마을들을 저희 회원 마을로 영입하는 등 꼭 금강만 고집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강 지류 상류가 깨끗하면 금강이 깨끗해지고 금강이 꺠끗해지면 대청호가 깨끗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게…

“이제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나 이러한 활동을 해왔으니 이제는 네트워크나 사무처나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좁은 범위의 환경운동이 아닌 좀 더 넓고 많은 곳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무주네트워크 이상진 대표는 앞으로의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자기도 생각을 해보겠다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인연을 위해 저희 본부의 앞길에 대한 많은 걱정과 관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중한 인연을 통해 저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인터뷰 였습니다.

글 **문광연**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용수천
그리고 갑사로 가는 길

계룡산을 휘감고 돌아가는 용수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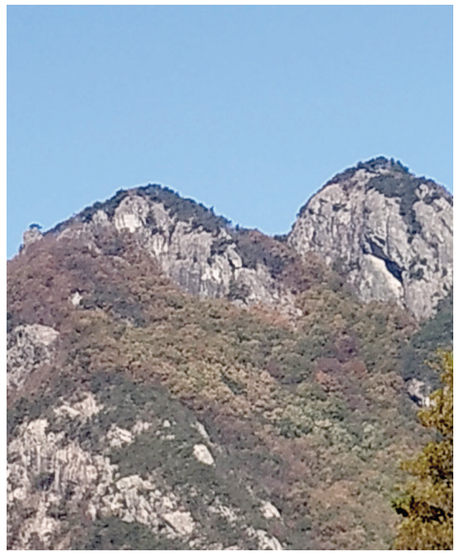
계룡산은 쌀개봉, 관음봉, 삼불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능선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비나 눈이 떨어지면 동학사 쪽으로, 서쪽으로 떨어지면 갑사 쪽으로, 남쪽으로 떨어지면 신도안으로 흘러갑니다.

2020년 5월 27일에는 갑사를, 2021년 11월 18일에는 남매탑을, 2022년 1월 2일에는 동학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갑사-금잔디고개-남매탑-동학사 구간을 몇 번 갔습니다. 젊은 시절과 최근에 간 기억을 살려 기록해 보겠습니다.

5월 갑사의 풍광은 온통 녹색지대입니다. 오리 숲에 들어서는 순간 맑은 내음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아람드리 고목이 보이고, 이름 모를 큰 나무들이 길옆에 도열 해 있습니다. 어딜 보아도 녹색입니다. 큰 고목에는 동그란 구멍들이 보입니다. 새들의 둥지로 보입니다. 둥근 연잎 위에서 물방울이 굴러가듯 경쾌한 새소리들이 귓전을 울립니다. “호로로롱 호로로롱” 저 멀리 박새와 호반새가 보입니다.

계곡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 보니 노란 꽃들이 많이 보입니다. 녹색 줄기에 녹색 잎, 그리고 노란 꽃입니다. 노란 꽃잎이 다섯 장, 수술도 모두 노란색입니다. 녹색지대에 노란 꽃이 있으니 참 돋보입니다. 황매화입니다.

멀리 계룡산 장군봉이 보입니다



갑사로 가는 오리숲입니다

오리숲옆 달문택입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5월, 온갖 꽃들과 나무들이 푸르름을 자랑하는 5월은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입니다. 오리 숲을 지나며 오른쪽 계곡을 보니 작은 연못이 보입니다. 돌로 보를 만들고 시멘트로 길을 만든 것을 보니 사람들이 만든 연못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달문택(達門澤)입니다.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연못으로 가는 문을 통달했다'라는 뜻 같습니다. 이곳은 갑사 9곡에 속하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말에 계곡물을 막아 연못을 만들고 배를 띄워 풍류를 즐긴 곳입니다. 계곡을 막아 연못을 만든 곳이라 낙엽들이 물에 쓸려 내려와 쌓여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풍류도 좋지만 흐르는 물을 막아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계곡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갑사 계곡은 수량은 많지 않지만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향기로운 공기, 숲이 많아서 그늘진 곳, 습도가 높은 이런 곳에는 이끼도롱뇽이 서식합니다.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습니다.

갑사를 지나 경사진 계곡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금잔디고개가 나옵니다. 젊은 시절 금잔디 고개에 힘들게 올라오면 바로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걸리에 안주로 고추 삭힌 것을 파는 아줌마입니다. 땀을 내며 올

동학사 일주문입니다

대전시 깃대종 이끼도롱뇽입니다

라와서 시원하게 먹는 한잔의 막걸리는 참 맛있습니다. 요즘은 없겠지요?

이곳에서 떨어진 비나 눈은 갑사 옆 계곡을 지나서 하대천으로 들어갑니다. 이 물은 계룡저수지로 유입됩니다. 저수지를 나온 물은 노성천을 지나서 논산천으로 들어갑니다. 논산천 물은 젓갈 시장으로 유명한 강경포구 위에서 금강물을 만나게 됩니다. 금강물은 서해로 들어가지요. 드론을 띄워 이 물줄기를 본다면,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며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평평한 너들지대인 금잔디 고개를 지나서 동학사 방향으로 길을 재촉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느닷없이 남매탑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집에서 남매탑으로 가는 길은 버스를 한 번만 타면 됩니다. 11월 18일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동학사 주차장에 도착하니 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11월 중순인데 산중이라 그런지 공기가 매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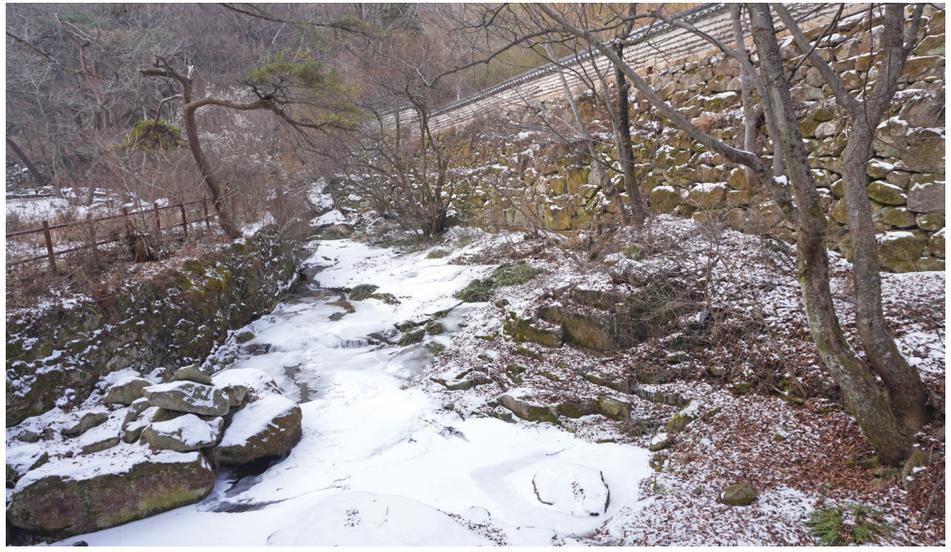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옆 상가에는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군밤 냄새, 군고구마 냄새….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부모님과 같이 온 아이들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사 달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요. 조금 더 올라가니 산채비빔밥 골목이 보입니다. 이곳도 역시 입맛을 자극합니다.

동학사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주문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붕 아래 색깔이 참 곱습니다. 오른쪽에는 동학사 계곡물이 힘차게 흐르고 산에는 나무들이 빼곡이 있습니다. 이런 계곡 옆에도 이끼도롱뇽이 살아갑니다. 이끼도롱뇽은 폐가 없이 피부로 호흡하며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끼도롱뇽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지요. 깨끗한 공기와 시원한 그늘,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에 사는 이끼도롱뇽은 그 지역의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종이지요. 양서류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만 적응한 도롱뇽입니다.

2022년 1월 2일입니다. 최근에 해마다 저는 1월 1일에 계룡산과 동학사에 갑니다. 계룡산은 우리 집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맑은 공기와 싱그러운 자연이 좋습니다. 한때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해서 무속인들이 많이 있었지요. 1월 1일에 산을 오르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를 설계합니다.

눈 쌓인 동학사 계곡입니다



동학사의 겨울풍광입니다

오누이의 전설을 간직한 남매탑입니다

일주문을 지나니 동학사 초입에서 우측으로 가면 남매탑으로 가는 길목이 나옵니다. 옆의 계곡을 보니 온통 얼음으로 덮혀 있습니다. 영하 10도 추운 날입니다. 계곡도 작은 폭포도 모두 얼었습니다. 지난 봄, 여름, 가을까지 계곡 옆에서 살았던 이끼도롱뇽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땅속 깊은 곳이나 바위 밑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겠지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사이로 푸른 물이 떨어질 것 같은 푸르른 하늘이 보입니다. 춥고 맑은 날은 더욱 푸르게 보입니다.

남매탑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곳은 돌이 참 많습니다. 초입부터 돌이 많고 계단도 많습니다. 조금 올라가니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니 바로 남매탑이 보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이상보 선생님이 쓰신 수필 '갑사로 가는 길'이 생각납니다.

신라 선덕여왕 원년에 상원대사는 계명정사 옆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서 입속을 보니 목에 인골이 박혀 있어 대사는 이것을 빼주었다. 얼마 뒤 이 호랑이가 처녀를 한 명 물고 와 놓고 갔다. 이 처녀는 경상도 상주의 김화공의 딸 이었다. 상원대사의 인품과 성품에 반한 이 처녀는 부부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대사는 끝까지 수도에 정진하며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의남매를 맺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 이곳이 남매탑입니다.

잠시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국어 선생님께서는 감정을 넣어서 차근차근 읽어 주셨고, 우리는 집중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곳을 40여 년 만에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날리는 눈 사이로 보이는 남매탑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남매탑 옆으로 떨어지는 눈이나 비는 동학사 계곡을 지나서 용수천으로 갑니다. 용수천은 돌고 돌아서 세종특별자치시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금강과 만나서 공주, 부여를 지나 강경에서 다시 논산천과 만나지요.

동학사 계곡, 갑사 계곡, 용수천, 논산천, 금강에는 남매탑의 전설이 흐르고 있습니다.

글 **여규용** 6기 대청호해설사

일 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금강지킴이단 활동

22년 4월 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처음 학생들과 마주하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가을빛이 완연한 요즘 학생들과 걸었던 대청호를 찾았다. 푸르고 가득한 대청호 물을 보며 반대편 산등성이를 넘어 불어오는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본다. 시간은 이렇게 기다림 없이 흘러갔다. 봄의 빛깔이 물속에 잠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라고 한다. 푸르던 잎은 꼿꼿했던 갈기를 힘없이 늘어뜨리고 무성했던 시절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다. 계절이 가고 오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된다. 지난 4월에 제일고등학교 학생들과 처음 대면을 했을 때가 생각난다. 호기심 많은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밝고 명랑한 모습의 학생들이었던 모습들이 함께 하게 될 나도 기대감이 컸었다.

지금은 아득한 기억 속이지만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딱히 떠오르는 추억은 없는 것 같다. 지금부터 함께 하게 될 환경지킴이 활동이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제일고 학생들과 일 년 동안을 돌아보는 마지막 활동으로 이번에는 학교에서 그동안 현장 탐사를 통하여 보고 느낀 바를 학생들이 직접 PPT를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본다. 앞으로 지금의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환경지킴이로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

올 일 년 동안은 참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학교를 찾아서 물 환경 교육을 한 것은 물론이고 소하천 오염방지를 위한 마을 활동, 그리고 틈틈이 환경단체 활동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빼놓지 않고 추진하고 참여하였다. 많은 해설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올해는 특히 수돗물에 대한 관심을 고취 시키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활동도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반성의 기회로 삼아 볼까 한다. 이 시대에 우리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참 크다. 그 이유는 수돗물에서 나오는 이물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이물질이 나오는 이유는 수도관의 노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오래되어 부식되고 그래서 그 틈으로 지하의 이물질들이 들어와 서식하고 그것이 관거를 타고 각 가정에 공급 되다 보니 자연히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수돗물안심확인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안전 여부를 검사하는 현장에 모니터링 차원에 참여하게 되었었다. 각종 장비와 시약을 준비하여 중금속은 물론 탁도, PH, 냄새, 등을 검사하는 모습을 직접

제일고 대청호 환경 활동

제일고 지킴이단 서약식

비점오염교육

보았고 그 결과를 검사를 신청한 가정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참관한 모든 가정의 수돗물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구두로 설명을하고 나중에 서류로 판정 결과를 다시 한번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던 기억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 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물 환경 교육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수질오염 부분의 비점 오염 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상반기부터 매월 실시한 비점오염 교육으로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접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 교육을 시행하였었다. 비록 그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수질오염의 중요한 부분인 비점오염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 오염의 대부분은 비점오염이 주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심하게 행동하는 것 중에서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 논밭에 비료나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일, 세차장이 아닌 냇가나 공터에서 세차를 하는 일, 반려견의 배설물을 그냥 두고 가는 일등이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비점오염을 발생시키는 행동들이라는 거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접근해 있어서 자칫 무심하게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라 더욱 신경써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여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공감해하는 표정이 듬직했다. 잘 지켜 가기로 약속도 했고….

얼마전에 대청호 이현동 길을 다시 찾아 걸었다. 대청호 오백리길 중에 2구간에 속하는 일부를 혼자 천천히 걸으며 가을로 성큼 접어든 풍경을 눈에 담아 본다. 계절은 이렇게 어김없이 오고 가는데 늘 마음속으로 약속한 우리들의 자연사랑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진다. 말로는 자연사랑과 환경지킴이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만큼 실천하고 노력하는지 돌아볼 일이다. 환경 교육사로서 진정 부끄러움 없는 행동과 모습을 보였는지 지금 이시간 돌아보며 반성을 해 본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데 아직도 교육현장을 보면 말을 하면서도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고 느끼게 된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호박 축제가 끝난 지금 축제 때 사용 되었던 현장은 을씨년스럽다. 아직도 대롱거리며 매달린 호박들과 그것이 땅에 떨어져 뭉개지고 썩어가는 모습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은 무엇을 위한 축제인가 하는 것이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이것은 비단 이곳 축제뿐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청호의 명물인 억새가 그 깃털을 곱게 휘날린다. 은빛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은 이곳 대청호의 자랑거리이다. 이름하여 물억새라고 한다. 얼마나 고운 이름인가? 그것을 보려고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만큼 아름답고 힐링의 장소로 최고인 곳이 대청호이다. 우리가 아끼고 지켜야 할 아름다운 이곳을 어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특히 이현동 길을 걷다 보면 정비해야 할 시설물들이 눈에 뜨인다. 처음 시설할 때 설치했던 것인 듯 싶은 벤치 등이 제자리가 아닌 숲속에 방치되듯 버려진 곳이 눈에 뜨인다. 이런 시설물이 방치된다는 것은 이것을 설치하고 이후 이용하는 곳에서 무관심으로 버려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자리로 옮겨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쉼자리를 제공 함이 옳지 않을는지?

금년 일 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한다. 돌아보면 참 부족했던 일들이 참 많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 환경이라는 문제가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자만심에 빠져 앵무새처럼 주어진 이야기만 하고 다닌 건 아닌지? 환경활동가로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행동은 하고 다녔는지 등등…. 많은 것들이 생각난다. 이제 부족했던 것은 채우고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자. 해설사라는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은 생각과 행동으로 모범이 되도록 하고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았으면 한다. 비난보다는 칭찬으로, 탓하기보다는 응원과 격려로 함께 가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우려와 기대

전통적 지리인식

‘천하지형세시호산천(天下之形勢視乎山川)’, 고산자 김정호 선생은 대동여지도 목판에 덧붙이는 글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한다. ‘하늘 아래 형세를 보고 산천이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땅은 산과 물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곳은 산이요 낮은 곳은 물이다.

산과 물은 끊임없이 이어져 흐른다. 그래서 산줄기, 물줄기라 한다. 산줄기는 대간과 정맥들이다. 산의 중심을 이은 선을 마룻금이라 하며 위로 뾰족하게 솟은 부분을 봉우리, 아래로 오목하게 내려앉은 부분을 재(고갯마루)라고 한다. 물줄기를 하천(河川), 강과 내라고 부른다. 물줄기가 흐르다 잠시 멈춘 곳을 호소(湖沼), 물이 모이는 공간을 유역이라 한다.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은 ‘산은 스스로 물을 가른다’는 말이다.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는 뜻이다. ‘산주분이맥본동기간(山主分而脈本同其間), ‘산은 본래 하나의 뿌리로부터 시작하여 수없이 갈라져 나가는 것’이다. 수주합이원각이기간(水主合而源各異其間)’, ‘물은 서로 다른 근원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산은 스스로 나뉘며 물을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한다. 물은 스스로 모이며 생명을 키우는 요람의 역할을 한다.

사람도 물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 사람이 모여 살면 자연스레 마을과 도시가 형성된다.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를 잇는 통로가 길이다. 길이 물을 만나는 곳에 나루가 있고, 길이 산을 만나는 곳에 고개가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나루가 있던 곳에 다리를 놓고 고개가 있던 곳에 터널을 뚫는다. 하지만 한반도운하와 4대강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자연지리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거슬렀기 때문이다.

대청호 전경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의 산줄기와 물줄기

충청북도는 바다를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이다. 그럼에도 ‘청풍명월의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수려한 자연환경과 올곧은 품성과 기질을 지니고 있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팔도 사람들의 특성을 표현한 사자품평에서 충청도 사람을 ‘청풍명월(淸風明月)’이라 표현했다고 한다.

면적은 7,407.67㎢(국토의 7.5%), 인구는 1,600,837명(국민의 3.1%), 3개 시와 8개 군으로 이루어졌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첨단산업과 교통물류체계, 참여협력적 도민역량이 결합되어 신수도권 거점·배후지역으로 위상을 키우고 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 삼국시대에는 각축장으로서 백제, 신라, 고구려에 번갈아 가며 속했다. 고려 때 충청도라는 지명이 생겨났고, 조선 말인 1896년 13도제를 실시하면서 처음 충청북도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충북은 민족 융합과 문화 통합의 중심이었다.

충북의 산줄기는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과 그 지맥들로 이루어져 있다. 백두대간의 큰 산줄기가 경북과 도계를 이루고 있으며, 속리산·월악산·소백산 등 3개의 국립공원을 담고 있다. 속리산 천왕봉에서 뻗어나온 한남금북정맥이 한강과 금강의 분수계를 이루며 충북을 동서로 가로지른다. 백두대간(白頭大幹)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 이르는 1,494.3㎞의 장엄한 산줄기이다. 국토의 뼈대이자 모든 산줄기의 근간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상징이며, 문화적 특성을 구획하는 울타리이자 국토의 중심 생태축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중 충북지역의 백두대간은 단양군 소백산 고치령으로부터 영동군 삼도봉에 이르는 약 247㎞의 구간으로 남한지역 백두대간(670㎞)의 1/3을 차지한다. 충북의 백두대간은 환경생태적,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좀 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충북의 백두대간은 3개 국립공원이 밀집하여 빚어놓은 수려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2개의 국립공원 중 백두대간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은 7개이다. 이중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 3개의 국립공원이 충북지역에 밀집해 있다. 소백산은 아고산지대로서 국내 최대의 주목군락지가 천연기념물(244호)로 지정되어 있다. 소백산과 월악산 사이 조령산 일대에는 조령산 자연휴양림과 문경새재도립공원(경북)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남쪽 구간 중 황악산-삼도봉-민주지산 일대는 국립공원 못지않은 경관과 원시적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충북의 백두대간은 한강, 금강, 낙동강 등 남한 3대강을 동시에 발원하며 구획한다. 속리산의 천왕봉에서 발원한 세갈래 물줄기를 삼파

수라 부른다. 충북지역 백두대간의 서북쪽으로는 한강, 서남쪽으로는 금강, 동남쪽으로는 낙동강이 각각 흐른다. 강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잉태한 젖줄이며, 이러한 강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산이다. 충북의 백두대간은 영남, 호서, 중원지역과 수도권에서 각각의 독특한 지역문화와 도시문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 백두대간 천연장벽은 오랜 역사 속에서 군사적, 문화적 경계로 작용한 것이다.

셋째 충북의 백두대간은 주요 고갯길이 있어 남북과 동서를 잇는 문물의 이동과 교류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할 때 고개를 단 한 번만 넘고 갈 수 있는 길목이 바로 충북지역 백두대간의 고개들이다. 계립령(하늘재)과 죽령은 가장 오래된 백두대간 고개들이다. 조령(새재)는 영남대로가 지나가는 조선 관문이었다. 교통이 발달한 현대에는 추풍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듯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물의 이동과 교류를 적절히 허용하는 넉넉함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충북의 물줄기는 한남금북정맥을 중심으로 크게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으로 나뉜다. 강원도에서 남하하던 한강은 충북도에 진입한 후 백두대간 소백산과 월악산에 부딪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우리나라 최대의 담수호인 충주호에 머무르다 물맛 좋기로 유명한 달래강(달천)천과 합수한 뒤 서해를 향해 유유히 흐른다. 전라북도에서 북진하던 금강은 충북에 진입한 뒤 백두대간 속리산과 한남금북정맥에 가로막혀 서쪽으로 방향을 튼다. 충청권의 젖줄인 대청호에 머무르다 미호종개(천연기념물 454호)의 발견지인 모래하천 미호강과 합수한 뒤 서해를 향해 굽이쳐 흐른다. 충청북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은 바로 한강

충주호 전경

과 금강의 물줄기가 백두대간 및 한남금북정맥의 산줄기와 부딪치고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이다. 강이 빚어준 상생의 터전, 그 속에 11개 시·군과 마을과 도시가 자리 잡았다.

개발낙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근대화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충북은 개발 낙후지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후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개발사업과 기업유치에 집중하였다. 개발성장주의 정책이 지역발전전략의 주류를 차지하였다. 2000년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힘입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지역발전의 여건도 변하였다. 신수도권 형성 및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증폭되었고 '경제특별도 충북', '4% 경제 실현', '100만 청주시 달성'라는 슬로건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북지역도 도시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도내 곳곳에 13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은 생태계 훼손과 환경오염을 동반하였다. 수많은 시설과 도로는 보전지역과 공원녹지 등 생태면적을 잠식하였고 산림생태계를 단절시켰다. 아파트와 공장과 농경지가 쏟아낸 부산물들은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심화시켰다. 대형댐과 수많은 저수지들은 하천생태계를 단절시켰고 수질오염과 부영영화로 이어졌다. 도시지역은 과밀개발로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등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촌지역도 개별 사업장과 축사 난립 등 난개발로 시름하고 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쓰레기 대란을 촉발하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 환경단체가 결성되면서 하천살리기와 백두대간보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환경오염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문장대용화온천개발중단 등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활동도 확대되었다.

지난 3년 코로나19 사태는 엄청난 혼란과 인명 피해를 초래한 반면 인류 문명에 대한 성찰과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기후재난은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C 내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09°C 상승하였다. 국제사회는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결의하고 글로벌 그린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9월 134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하였다. 기업들은 RE100과 ESG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망은 비관적이다. 최근 IPCC는 6차보고서를 통해 1.5°C 상승 시기를 2021~2040년, 기존보다 10년 가량 앞당겨 예측하였다.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한 고민도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방향과 방법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의 공동체 구현,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과제는 '탈탄소 녹색전환'의 방향으로 융합·통합하여 풀어가야 한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도 이러한 관점에서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충북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 참여협력체계는 지역사회 발전의 유력한 방법이자 수단이다. 청풍명월 고장이라는 특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자 한다면 방향은 '녹색전환'이고 방법은 '참여협력'이다. 민선 8기 충청북도가 이점을 숙고하길 바란다.

시민사회단체장 간담회

미호강포럼 발족 도민원탁회의

중부내륙지원특별법 민관정공동위원회 출범식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상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취임사에서 '충북은 바다가 없으나 호수가 있고, 항구가 없으나 백두대간의 산이 있고, 배가 없으나 만 갈래의 길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언의 의도를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자연환경적 특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대표 공약으로 부각되어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좋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보전과 개발의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충북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가치, 그동안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여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던 중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 구상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을 시작하였다. 충청북도는 9월 13일 문화, 관광, 웰니스 분야 전문가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레이크파크 연구용역을 보류하여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던 바 있었으나, 이번 민관위원회 가동이 본격 추진의 신호탄이 된 셈이다.

그동안 김영환 지사는 바다가 없지만 호수가 있는 충북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충북 르레상스를 이끌 레이크파크의 방향과 구상은 더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스스로 강조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유치가 아닌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4대강사업 같은 인위적 개발사업과 다를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우려도 컸다.

환경단체와 환경활동가들은 충북의 자연환경, 산줄기와 물줄기, 하천과 호소의 관리에 관하여 오랫동안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활용하지 않고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전하며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보전에 앞서 규제 완화와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대활동를 촉발하고 논란과 갈등을 키워왔던 것이다. 레이크파크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김영환 지사는 환경을 훼손하면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환경을 보전하면서 우리의 권리도 주장하고 획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의 원칙과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크파크 르레상스라는 익숙하지 않는 표현의 정책이 충북도민과 환경단체들에게 불신이 아닌 확신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도지사도, 도시사가 위촉한 민관위원회 위원도 이 점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첫째, 환경보전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레이크파크 사업이 물환경 보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환경보전을 전제로 물권리를 주장하고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환경단체도 동의하며 기꺼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과 하천, 유역에 대한 개념과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은 생명을 잉태하며 문화를 창출한다. 하천과 호소는 생물과 사람에게 서식처이자 삶터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역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상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유역거버넌스 시대, 하천과 유역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일상적 지속적인 주민참여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유역의 구성원(제 사회집단)들의 정책 협의와 조정을 위한 논의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참여협력적 유역관리체계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넷째,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 및 활용방안은 산줄기와 물줄기를 연계한 통합적 개념(블루-그린 네트워크)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풍명월의 고장은 남한강~충주호~달래강, 금강~대청호~미호강의 물줄기가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의 산줄기와 부딪히고, 충주와 청주 등 마을과 도시가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물이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4대강사업과 같이 자연의 원리를 깨트리는 방법이 아닌, 산자분수령의 원리를 지키고 충북의 특성과 장점을 발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바야흐로 충청북도는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특강도 추진하고 있고, 환경단체들과의 쟁책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 부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기대가 우려를 앞서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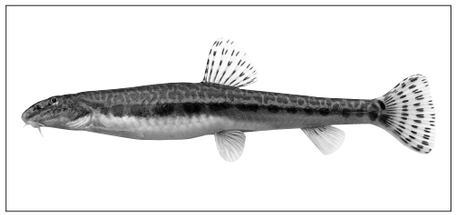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고무적인 측면이 크다. 충청북도 미호강 맑은 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미호강포럼 발족(10. 27)이다. 미호강포럼은 시민사회부문, 행정부문, 학술연구부문의 지역인사 90여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계이다. 발족식에 참여한 김영환 도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한 가지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11. 18)이다. 민간부문이 주도하되 행정기관과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민과 관, 여와 야가 협력하여 대응키로 하였다. 레이크 파크와 연관성이 높은 이 두 가지 사안도 핵심은, '환경을 보전한다는 전제하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금강수계 미호종개 어류 방류행사

지난 2022년 10월 19일과 20일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 그리고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수생태 조성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보호어류 미호종개 방류행사가 있었습니다. 미호종개 방류행사는 19일에는 청양군 부여군 지천 일대에서 20일에는 세종시 미호강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9일 미호종개 방류행사에서는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K-water 이경희 환경본부장,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연유산 체험사례 공모전에 참석한 학생들과 함께 지천에서 미호종개 방류를 함께 했습니다.



미호종개

20일에는 세종시 미호강 일원에서 미호종개 방류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금강유역환경청 안종일 자연환경과장과 K-water 물환경개선처 김범석 처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김재곤 총무부장 등이 참석하여 미호강에서 미호종개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매년 미호종개 3,000마리가 추가로 방사될 예정이며, 꾸구리, 어름치와 같은 국가보호어류 또한 함께 복원하고 있습니다.

미호종개란

몸길이는 6~7cm로 몸은 가늘고 길며, 꼬리자루의 뒤쪽이 앞쪽보다 옆으로 더 납작하다. 눈 밑에 끝이 둘로 갈라진 가시가 있다. 주둥이는 길고 뾰족하며, 입에 3쌍의 수염이 있다. 측선(옆줄)은 뚜렷하지 않다. 수컷의 가슴지느러미 끝부분의 골질판은 가늘고 길며 톱니 모양이다. 몸 빛깔은 연한 황갈색으로, 몸의 양쪽 중앙부에 12~17개의 원형 또는 삼각형으로 된 암갈색 얼룩줄이 있다.

물의 흐름이 느리고 바닥이 모래와 자갈로 된 얕은 곳에 서식하므로 쉽게 잡힐 수 있다. 잡식성이며 모래 속에 몸을 완전히 파묻고 산다. 한국 특산종으로 1984년 신종으로 발표되었다. 대청호 이남의 금강 지류인 미호천이 서식지이다. 폐수와 골재채취 등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했다. 1996년 1월 환경부가 특정어종으로 지정,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다. 2005년 3월 1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글 **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맑고 깨끗한 대청호에 살리오”

대청호 드로잉 환경콘서트

지난 10월 21일(금) 오후 4시, 대청댐 휴게소 분수광장무대에서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대청호 드로잉 환경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청호 일대 문화예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 감수성과 생활 속 환경 사랑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서는 이름 꽃 화가로 유명한 박석신 화가와 시인가수 정진채씨, 장구의 달인 한기복씨와 함께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즐거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언석 부이사장님의 축하말과 주민분의 소감을 말하며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석신 화백의 재치 넘치는 멤버 소개와 함께 자신의 이름 꽃 그림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해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울렸던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한 관객분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동안 자식을 키워오면서 마치 남자의 인생처럼 굳세게 살아오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담은 딸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닮은 아름다운 호박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관객들과 소통하며 많은 이름 꽃 그림을 그리며 시인가수 정진채 씨의 시를 노래로 바꾼 도종환 시인의 “바람이 오면”, 나태주 시인의 “풀꽃” 등과 본인의 자작곡을 부르며 그림을 그리는 중간 중간에도 한시도 지루하지 않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공연의 막바지에는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장구의 소개와 함께 한기복 씨의 멋진 장구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 고 있는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사물놀이의 모든 악기가 있는 공연이 아닌 장구만으로 하는 공연이었지만 사물놀이 못지않은 큰 울림과 감동이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연 관객

박석신 화백(좌), 정진채 씨(우)

한기복 씨

콘서트의 마지막으로 관객들의 앵콜 요청으로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라는 시를 노래로 만든 곡을 듀엣으로 부르며 콘서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날 방문한 대청호일대 주산동, 이현동, 삼정동,미호동 마을주민 등 100여명의 관객들은 이구동성으로 “날은 쌀쌀해졌는데 마음은 풍성해졌다”며 “사람사는 세상 사연을 나누고 공감하는 멋지고 의미있는 공연이었다”고 지속적인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올해도 서화천 유역에서 민관협력으로 빛이 났습니다!

서화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이하 서화천 거버넌스)의 2022년의 활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마을하천가꾸기, 도랑살리기, 친환경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주민참여형 실천 활동을 전개해오던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015년부터 대청호 직유입 하천인 서화천 유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어느덧 7년이 되었다. 특히 서화천 거버넌스 활동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연구과제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본격화되고 구체화되었다.

환경리더와 하천모니터링단은 매주 옥천군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금산군 추부면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10월 말까지 실시하였다. 하천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홍보현판을 제작하여 오염지점마다 설치하였는데 30곳의 지점에 설치하였다. 쓰레기 투기, 소각 지점의 원상 복구 활동도 실시하였다.

실천마을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을 활동도 어느 해 못지않게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마을 및 하천 정화활동이 군북면 이백2리, 자모리, 군서면 동산리, 은행리(상은행리, 하은행리), 오동1리, 월전리, 추부면 용지1리 등의 마을에서 총 17회 실시되었다. 600 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약 54.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주민 환경교육도 실시되었는데,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교육,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교육, 천연비누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다. 군북면 자모리, 이백2리, 군서면 동산리, 월전리, 은행리(상은행리, 하은행리), 오동1리, 옥천읍 소정리, 추부면 용지1리 등의 마을에서 총 11회의 환경교육이 3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또한 비가림 분리배출시설이 설치된 군서면 월전리, 오동1리, 군북면 이백2리, 추부면 용지1리에서는 분리배출시설 활용을 올바로 하기 위한 분리배출 현장 교육을 150여명의 주민과 함께 실시하였다.

올해는 영농폐기물 소각 근절을 위해서 파쇄기를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지난 9월 군북면 자모리에 지원하였고 현재 마을에서는 적극 활용중이다.

지난 10월 6일에는 서화천변 육상 및 수상 민관협력 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다. 하천변에서는 금산군 추부면, 옥천군 군서면, 옥천읍, 군북면의 4곳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는 군서면 월전리 부근 서화천에서 수상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총 200여명이 참여하였고 약 18톤의 쓰레기를 동시다발로 수거하였다. 대청결운동은 중도일보 등 여러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올해의 거버넌스 활동을 평가하는 주민설문조사가 10월 중 실시되었고, 최종보고회가 11월 3일 옥천읍사무소에서 열려 활동평가와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올해 활동에 대한 모든 것은 최종보고서를 제작하여 알릴 예정이다.

올해도 서화천 유역 거버넌스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응원해 주신 지역 주민분들, 각 읍행정복지센터 읍장 및 면장, 주무관님들, 운영위원분들, 금강유역환경청과 K-water 대청댐지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과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가져본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회인천 축분관리 거버넌스 사업보고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여 기존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에서 '회인천 축분관리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거버넌스 사업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회인천에서 진행한 축분관리 거버넌스 사업에 대해 대청호 소식지를 읽는 독자분들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회인천 축분관리 거버넌스는 대청호로 직유입하는 회인천 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중 축분관리를 중심으로 수질개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거버넌스 운영위원회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축분관리와 처리 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 축분 소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축분관리 위원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며 축분 방치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 축분 조사 디지털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인천 유역에서는 명절을 기점으로 마을 및 하천 정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추석 이전에 많은 마을에서 마을 및 도랑 하천 등에서 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하여 추석이 빠른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마을 정화활동 또한 빠른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8월 12일 고석리 마을 정화

활동 및 환경교육을 시작으로 8월 29일 송평1리, 9월 1일 신대리, 9월 3일 용곡1리와 눌곡리 마을에서 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을뿐만 아니라 회인천 유역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맑은 회인천을 위해 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회인면 죽암2리 지역에 있는 죽암교와 중앙리 일대 회인천변에서 '회인면 주민자치회'와 회인면과 함께 민간합동 대청결운동을 했습니다. 맑은 회인천 그리고 대청호 보전을 위해 주민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활기찬 대청결운동이었습니다.

올해 회인천에서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6분의 모니터링단분들이 매달 2째주 화요일에 모니터링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회인천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천변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지역과 소각하는 지역에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통해 쓰레기 투기도 줄이고 하천변 소각을 예방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몇몇 하천변 소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장소는 안내판을 통해서 더 이상소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가가 되면서 지난 4년 동안 회인천 지역에 거버넌스 활동을 해왔습니다. 활동하는 4년 동안 회인천 유역에서는 환경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이루어져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축분이 쌓여있던 곳은 주민분들이 축분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비가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하천변 소각 또한 줄어들고 있으며 환경교육으로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맑은 회인천과 대청호 보전을 위해 우리 단체 활동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더 많은 활동을 할것입니다.

영동네트워크

찾아가는 환경음악회

글 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영동네트워크에서는 11월 10일 올해의 미지막 사업으로 찾아가는 환경음악회를 하가리 마을에서 진행했습니다. 10월 31일에 예정이였는데 이태원 참사로 애도기간이 되어 취소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업기간으로 다른 날짜와 마을을 선정했고 마지막의 일정을 하가리마을에서 너무나 즐겁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수 있었습니다. 햇살과 날씨가 따뜻한 날에 낙엽이 진뜩 쌓인 마을의 명당자리가 음악회와 너무나 잘 어울려 주었고, 마을분들의 많은 참여가 더더욱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색소폰 연주가 멋있게 어우러진 저물어가는 가을을 만끽할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은네트워크

우리마을은 주민 스스로 깨끗이!

글 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보은에서 마을 회의도 PPT로 진행하시는 마을은 분저리마을밖에 없을 듯 한데요. 환경교육 자료도 최병주 이장님께서 강사님 강의하시기 편하게 올려주신 덕분에 환경교육강사님 강의하시는데 다들 집중해서 잘 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청호 주변 마을이다 보니 아예 축사가 없으며 또한 읍내에서 떨어진 마을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노력을 하며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원으로써 거버넌스사업에 적극동참하

고 정기적인 마을회의 및 교육을 통하여 이장님이 환경 홍보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마을주민 모두가 대청호 수질 보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네트워크

주민하천관리단과 함께 마무리 활동

글 **오하연** 청주네트워크 팀장

청주네트워크는 9월 22일 대청호 청주네트워크 9월 운영위 및 문의권역소유역협의회 4차 회의를 추진하여 11여명의 위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 맑은물 한마당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10월 14일 진행된 대청호 문의권역 주민하천관리단 활동은 5월 3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된 활동으로 이날 6차 활동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주민하천관리활동은 주민참여 하천관리활동으로 물환경 보전을 위해 유역 주민들로 주민하천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구간을 나누어 오염원 조사 및 감시, 계도, 정화활동을 진행하는 활동으로 올해도 주민하천관리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11월 4일 추진예정이었던 대청호 맑은물 한마당 사업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애도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마을하천 정화활동으로 변경하여 6개 마을별 마을정화 활동으로 변경하여 진행중이며 11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무주네트워크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정화활동

글 **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무주네트워크는 소유역거버넌스 사업 중에 있는 하천 정화 활동을 부남면 상굴암에서 10월 28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정화 활동은 지난 4월 17일 1차 진행을 이어 두 번째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날 마을주민들 25명이 참여하여 1시간 동안 금강 주변에 각종 생활 쓰레기나 플라스틱 비닐 떠내려온 스티로폼 또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을 수거하였으며, 금강 주변 및 마을 입구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풀제거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날 금강 정화 활동을 진행하면서 50ℓ 쓰레기봉투 14개 등 총 300kg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 앞 쓰레기를 직접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우리 마을과 하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굴암 마을은 금강 천변을 따라 아름답게 조성된 금강 마실길 트레킹 코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마을입니다. 무주네트워크와 부남면 상굴암 마을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화 활동을 통해 대청호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막고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강 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대전네트워크

주원천 소유역 거버넌스 운영 및 대청호 상하류 도농교류

글 **유지현** 대전네트워크 팀장

대전네트워크에서는 '주원천 소유역거버넌스 운영 및 대청호 상하류 도농교류' 주제로 올해 총 4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중 대청호 친환경농산물보따리 및 직거래장터 소개하겠습니다.

대청호 친환경농산물보따리 및 직거래장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주차장에서 '로컬푸드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청호 직거래장터, 환경체험부스, 환경캠페인, 대청호환경마당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청호 유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축제의

대전네트워크 참가단체들이 대청호보전, 수질개선을 위해 2022년 열심히 달렸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2022년, 남은 활동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

시민과 함께 물공동체로 하나되는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글 **이상명**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천안아산네트워크는 11월 16일 '시민과 함께 물공동체로 하나되는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활동 보고 및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 사업은 소유역 거버넌스 운영과 정책활동, 병천천 감시활동 , 수질개선 환경교육 및 수질정화 캠페인, 물환경 프로그램 개발, 주민대상 물환경 교육 등 5가지 영역으로 실행되었습니다.

2022년 병천천 수생태 조사 결과로 병천천 연춘교에서 상류 사방댐에 이르는 하천 구간과 수변에 총 71과 267종의 식물이 관찰되었고, 환경부가 지정한 국외반출승인대상종 16종도 관찰되었습니다. 물환경교육은 대학교,초등학교,중·고등학교,성당,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관,사업장 등 다양한 곳에서 교육 수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청호와 대청호운동본부를 알리는 교육컨텐츠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5차에 걸친 개발회의와 10차에 걸친 현장조사 및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5가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자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기별 수생태 조사와 지도를 만들고, 세대·직업·거주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옥천네트워크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환경사랑시철단

글 **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옥천네트워크는 올해 대청호로 직유입 되는 안내면을 중심으로 "소유역거버넌스"를 구성하였다. 안내면 동대리, 방곡리, 환경사랑실천단과 함께한다. 마을별 정화활동 및 교육, 회의, 농약병 수거로 이루어진다. 5번의 회의 중 4번의 회의를 진행하여 연간 계획 및 정화활동 일정 등을 공유하여 진행 중이다. 동대리, 방곡리는 마을별 정화활동 3회씩 진행하며 환경교육 및 천연비누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방곡리는 1차 6월23일 합동정화활동을 진행하여 쓰레기봉투 100L*20=2,000L 수거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환경교육 및 천연비누 만들기 교육 진행하였다. 2차는 8월24일 합동정화활동을 진행하여 총 1,100L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3차는 11월 예정중이다. 방곡리 마을은 소유역거버넌스를 통해 각종 쓰레기 수거 및 교육활동을 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동대리는 총 3차의 합동정화활동 및 교육을 진행하여 총 2,400L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과 친환경비누 만들기를 진행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안내면 "환경사랑실천단"은 안내면일대 농약병 수거 2회를 진행하여 총 8,100L의 농약병을 수거하였다. 힘든 농약병 수거를 함에도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해준 환경사랑실천단이 안내면은 자랑스럽다고 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안내면 "소유역거버넌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네트워크

꾸준히 이어져 오는 가시박제거

글 **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금산네트워크는 참여단체인 정심회에서 8월말~9월초에 추풍천유역 가시박제거작업을 하였다. 가시박은 외래종 식물로 번식이 왕성하여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식물을 뒤덮어 광합성작용을 할 수 없게 하여 토종식물을 고사시킨다. 뿐만아니라 마디마다 8개 정도의 가시가 달린 씨를 맺는데 이 가시가 옷에 붙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털어도 떨어지지 않으며 옷 속으로 파고 들어가 살갗에 박힌다. 이러니 동물의 털에 붙으면 어떠할까? 가시박은 성장속도가 빨라서 6월~7월에 제거작업을 하면 다시 난 싹이 서둘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고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말~9월 초, 가시박이 꽃피기 직전에 작업을 서두른다. 이후에 다시 난 싹은 씨 맺을 확률이 적다고 한다. 금산군내의 하천유역에 번성하던 가시박은 논과 밭을 비롯하여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정심회에서 13년 전부터 가시박제거작업을 해 왔는데 주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내 집과 마을 주변의 가시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서화천 녹조 예방 정화캠페인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사장 최병욱)는 6일 서화천 유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금강과 K-water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대청결운동을 개최했다. 서화천은 금강의 1지류로 금산군 추부면에서는 추풍천으로, 옥천군에서는 서화천으로 명명되고 있다. 서화천은 대청호의 녹조 발생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면서 서화천 유역의 오염원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따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015년부터 서화천 유역에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녹조 저감을 벌이고 있다. 주기적인 하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쓰레기 투기, 소각 근절 계도 활동, 오염지역 원상 복구 활동 등을 진행했다. 또한 서화천 유역의 마을에서 마을 및 하천 정화활동, 분리수거대 활용 교육을 통한 쓰레기 제로 마을 만들기, 기후위기 등 주민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대청결운동은 오전 10시에 서화천 유역의 금산군 추부면, 옥천군 군서면, 옥천읍, 군북면에서 동시다발로 실시해 하천변에서 뿐만 아니라 수상정화활동도 펼쳤다.

김종범 군서면이장협의회장은 “이번 수상 정화활동을 통해 서화천의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 같았다”라며 “앞으로 맑은 서화천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중도일보】 2022. 10. 06 임병안 기자

청주시, 대청호에 동자개 치어 4만9000여 마리 방류

충북 청주시는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대청호에 전염병 검사를 마친 동자개 치어 4만9000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자개는 담수에 서식하는 메기목 동자갯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다. 물 흐림이 느린 큰 강의 중·하류나 호수의 모래, 진흙 바닥 근처에 산다. 낮에는 돌 틈 사이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먹이를 찾아 활동하는 야행성 어종으로, 맛이 좋아 식용으로 인기가 있다.

지난해 방류한 6만8000여 마리는 성어가 돼 잡히고 있어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균형 있는 생태계와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토종어류 치어 방류, 교란어종 퇴치, 불법어업 행위 단속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6월에도 대청호에 뱀장어와 쏘가리 치어 3만2000여 마리를 방류했다. 2023년에도 건강한 수산종자 치어를 방류할 예정이다.

【뉴스원】 2022. 10. 13 강준식 기자

동구, 대청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TF 출범 등

대전 동구는 8일 대청호 일원서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박민범 동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대전시, 동구, 대덕구 관계 공무원과 주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구는 TF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대청호 활용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친환경 개발과 관광 인프라 조성 방안과 함께 TF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구, 청년예술작가전 ‘청춘컬렉션’ 2차 큐레이팅

대전 서구는 8일 청사 2층 로비에서 ‘청춘컬렉션’ 청년예술작가 2차 큐레이팅 행사를 열었다.

청춘컬렉션 청년예술작가전은 청년예술가들의 창작열정 고취와 구청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중인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0여 점의 작품이 1차 전시된 이후 두 번째다. 내년 2월 초까지 청년작가 12명의 작품 37점이 전시된다.

◇대덕구, 2022년 도시재생 우수지자체

대전 대덕구는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선정하는 ‘도시재생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대덕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집행 과정,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덕구는 지난 국토교통부 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은 2018년 2월 설립된 민관 및 학계 협치 플랫폼 단체로, 협치 기반의 도시재생 사업 발굴과 정책을 평가한다.

◇유성구,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대전 유성구는 8일 진잠동을 시작으로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에 들어갔다.

대전 자치구 중 벼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유성구는 시 전체 목표량인 1375포(800kg 기준)의 약 58%인 796포를 9개 동 153여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이날 진잠동에 이어 9일 학하동, 11일 구즉·신성·전민·관평동, 17일 온천1·노은1·노은2동 순으로 진행된다.

【뉴시스】 2022. 11. 08 조명휘 기자

“대청호 녹조↓”… 충북 남부권 하수시설 정비 1천700억 투입

여름이면 녹조 탓에 악취가 풍기는 대청호 수질 개선에 필요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대청호 상류인 보은·옥천·영동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28곳을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천786억여 원에 달하는데, 도는 이중 1천72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녹조를 발생시키는 주요 물질은 인과 질소이다.

농경지에 살포된 비료 주성분인 인·질소는 장마가 왔거나 태풍이 불었을 때 빗물에 섞여 하수관로를 통해 대청호로 흘러 들어간다.

구불구불한 지형 탓에 대청호의 물흐름이 느리다 보니 녹조는 다른 호수에 비해 일찍 나타나고 늦게 사라진다.

올해에는 8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49일간 녹조경보가 이어졌는데, 통상 물 1㎖당 5천 7천 cells(세포수)이 관측된다.

그러나 8월 하순 보은 회남수역에서는 한순간 13만9천cells이 기록되기도 했다.

경보는 관심(1천cells 이상), 경계(1만cells 이상), 대발생(100만cells 이상)으로 나뉘는데, 경계 수준의 13배에 달하는 짙은 녹조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 만큼 하천으로 유입되는 인·질소의 양을 서둘러 줄여야 대청호가 맑아진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작년 말 기준 94.5%에 달한다.

옥천은 90.5%로 이에 근접하지만 보은(77.8%)과 영동(70.3%)에서는 미처리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충북도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21곳을 정비하는 데 1천529억원을, 하수관로 7곳을 정비하는 데 25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염원을 줄여 대청호 수질을 개선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주민들의 수질 개선 의지를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2. 11. 13 심규석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청, 2022년 푸른환경지킴이 활동 보고회 개최

금강유역환경청은 11.9.(수) 금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푸른환경지킴이 활동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푸른환경지킴이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질·대기 오염도 측정, 환경 캠페인 전개 등의 환경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금강수계* 지역 총 15개교, 294명이 참여하였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 전역, 충북 6개 시·군(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 전북 3개군(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푸른환경지킴이 활동보고회는 학생들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활동학교를 선정·시상하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

심사에는 금강청, 광덕산환경교육센터 등의 교육 및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총 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였으며,

활동내용의 성실성, 독창성, 교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영예의 대상은 충북 옥천의 장야초등학교로 선정되었으며, 환경부장관상 및 학교발전지원금 200만원이 수여되었다.

우수상은 대전 봉산초등학교, 장려상은 계룡시 엄사중학교, 천안시 행정초등학교가 선정되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장상 및 학교발전지원금 각 100만원(우수상) 및 50만원(장려상)이 수여되었다.

옥천군

옥천군 불용농약 집중 수거 본격화, 환경보전에 앞장

옥천군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치된 불용농약을 집중 수거하여 환경보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불용농약의 안전한 수거 · 처리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다. 또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불용농약 2.5t 정도를 처리할 계획이다.

배출 방법은 농약이 담긴 용기 상태로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해 거주하는 읍 · 면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져다 불용농약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 내 수거된 불용농약은 군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상금 제도를 통해 수거해왔으나, 농가에서 쓰고 남은 각종 불용농약은 마을이나 농지 주변에 수년 동안 방치돼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 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043-730-3456) 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지역아동센터 환경교육 - '먹거리로 배우는 탄소중립!'

국가환경교육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먹거리로 배우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각 지역아동센터 별로 1,2차시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1곳의 지역아동센터(가로수마을, 강서, 남청주, 다락, 대성, 봉정, 사랑나눔, 사랑모아, 서원, 성화, 세현, 소나무, 옥산, 원광, 증평, 어깨동무공부방, 청주우리, 푸른학교, 한빛교실, 한우리, 해바라기)와 3곳의 돌봄교실(솔밭초 돌봄1,2,4실) 총 24곳에서 환경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수업은 〈탄소없는 먹거리〉를 주제로 탄소중립에 대해 알아보고, 먹거리를 이용해 탄소발자국을 계산해 보았어요.

보드게임을 통해 로컬푸드의 개념도 배우고, 로컬푸드와 탄소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2차 수업은 〈고기없는 먹거리〉를 주제로 채식과 육식, 탄소와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채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배웠어요.

버려지는 플라스틱병을 이용해 나만의 도시텃밭을 만들어봤어요. 직접 상추를 심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 배웠어요.

도시텃밭과 로컬푸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환경교육이 모두 끝난 후 각 지역아동센터에 설문조사를 요청했는데요,

환경교육을 통해 편식하는 친구들, 채소를 싫어하던 친구들이 조금씩 씩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어 좋았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교육을 통해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친구들의 모습에 기쁨을 느낍니다.

이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 YMCA

청소년활동기금 마련 2022 후원의 날 진행

대전YMCA가 청소년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날 행사를 지난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전YMCA 1층 카페에서 진행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코로나 세대라 불리는 청소년, 청년들이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며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 대전YMCA 회원 및 후원자들이 삼삼오오 방문하여 마음을 모았다.

꿈을 찾아 도전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꿈이룸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온 대전YMCA청소년장학회는 올해도 6기 꿈이룸장학생 51명을 선발하여 이날 꿈이룸장학금 2,810만원을 전달했다. 대전YMCA청소년장학회는 꿈이룸장학사업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하며 총 236명의 장학생을 선발, 누적장학금 1억3,270만원을 대전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원했다.

김찬훈 이사장은 "청소년과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그 지도력이 다시 지역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 대전YMCA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오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더욱 폭넓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상길마을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위례마을살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위례마을살이,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